

중소형기업, IPO 시장 맹활약... 올해 15곳 중 9곳 '따상'

대형 비해 물량 적고 공모가 저렴
기관·일반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전문가들 중소형주 강세 지속 전망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대어급 종목들이 상장 철회를 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들은 악조건에도 성공적인 증시 데뷔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IPO 예상 기업 수는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 전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 기업 15곳 중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한 곳은 9곳으로 집계됐다. 나노팀, 미래반도체, 바이오인프라, 삼기이비이, 샌즈랩, 스튜디오미르, 이노진, 오브젠, 꿈비 등이다.

IPO 시장에서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꼽힌다. 3월에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통한 감사의견과 영업실적을 바

〈2023년 따상 기록한 IPO 종목(단위:원)〉

| 기업명 | 신규상장일 | 상장시 시가총액 | 현재 시가총액 |
|--------|--------|----------|---------|
| 미래반도체 | 1월 27일 | 866억 | 2392억 |
| 오브젠 | 1월 30일 | 698억 | 1944억 |
| 삼기이비이 | 2월 3일 | 1573억 | 2874억 |
| 스튜디오미르 | 2월 7일 | 1004억 | 2225억 |
| 꿈비 | 2월 9일 | 397억 | 2144억 |
| 샌즈랩 | 2월 15일 | 1585억 | 2607억 |
| 이노진 | 2월 20일 | 361억 | 582억 |
| 바이오인프라 | 3월 2일 | 1007억 | 1175억 |
| 나노팀 | 3월 3일 | 2490억 | 5066억 |

/한국거래소

탕으로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 IPO 기업들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시장에 공모 대기자금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해에만 컬리, 시작으로 골프존카운티, 케이뱅크, 라이

온하트스튜디오, 오아시스가 모두 상장을 철회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가 산정과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공모 시기를 미뤘다. 반면, 중소형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저렴한 데다 유통 물량이 적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

최근 따상을 기록한 중소형주들의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스튜디오미르 1701.6대 1, 이노진 1603.3대 1, 꿈비 1547.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 경쟁률도 스튜디오미르 1592.9대 1, 이노진 1643.9대 1, 꿈비 1772.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 시장의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IPO 시장에 지속적인 참여로 공모주 수익률이 높아지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을 참고하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약 경쟁률이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과 동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대기 자금도 풍부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대

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151조원에서 지난 2월 말 기준 197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어급 종목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오는 3월에도 IPO시장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를 전망했다.

3월 중 IPO 예상 기업수는 12~15개로 집계됐다. 과거(1999~2022년) 3월 평균인 5개와 최근 5년(2018~2022년) 8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종선 연구원은 "3월 상장 예정 기업 중에서는 상장 규모로 가장 큰 여겨볼 종목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공모금액 320억원, 상장 시가총액 3500~4600억원)"이라며 "공모금액 면에서는 대형스팩 3개사 미래셋드림스팩1호 700억원, KB스팩24호 400억원, 삼성스팩8호 400억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에스엠 주가 3개월새 2배 ↑... 인수전 불투명

경쟁 격화되며 투자비용 높아져
일각선 '승자의 저주' 우려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둘러싼 인수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에 이어 카카오마저 공개매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인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투자비용이 점차 높아져가는 탓에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 주가는 전일 대비 3600원(2.27%) 내렸지만 15만4900원에 장을 마치면서 15만원을 웃돌고 있다. 전날에 이어 주가가 이를 연속 카카오의 공개매수가(15만원)를 넘었다. 오는 26일인 공개매수 종료일까지는 기간이 여유있지만 앞서 지난달 28일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가 실패한 만큼 불확성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에스엠이 절실한 하이브인 만큼 추후에 맞불전략을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

제를 갖춰 빅히트, 쏘스뮤직, 어도어, 플레디스 등 다수 레이블을 통해 IP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의존도가 과했던 2020년(92%) 대비 지난해 60%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 2021년에는 북미시장 강화를 위해 저스티비버·아리아나그란데가 속한 이타카 홀딩스로 인수했다. 여기에 중국·아시아 등에서 활동해온 에스엠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북미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에스엠은 중국 및 아시아에서 견고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 성공 시 해외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양사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하이브는 최근 추가적인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대 18만원의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스엠 인수가 절실한 것은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시장 매출 비중

을 높여야 하는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IT기술에 지적재산권(IP)를 접목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K-팝 영역의 부족한 퍼즐을 에스엠 인수로 메꾸겠다는 복안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 성공시 연간 2500만장이 넘는 음반판매량, 연간 250만명의 공연모객력을 갖추며 조 단위 매출로의 퀀텀 점프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 경쟁 격화로 인수 부담 비용이 크게 오르자 두 곳 중 어느곳에서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 7만6000원대였던 에스엠 주가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배가 넘게 치솟은 상황이다.

또한 주가 급등에 에스엠 주식에 공매도 투자도 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전날에는 159억원까지 치솟으면서 9배 이상 급증했다.

/이영석 기자 ysl@



손병두(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3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KRX ESG 경영 원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ESG 경영 속도 '미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침

증시개장 67주년... ESG 원년 선포
손병두 "지속가능 거래소 도약할 것"

한국거래소가 증시개장 67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 지속가능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KRX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미래 지속가능 거래소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선포식 행사에는 증시 발전과 안정적 시장운영에 기여한 대내외 업무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렸다.

먼저, 거래소는 ESG경영 확산을 위한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 (Exchange for Sustainable Growth, ESG)를 공개했다.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으로 상장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ESG 비전 달성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전략방향을 각각 ▲'친환경' 금융을 선도하는 리더 ▲다양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대 전략과제 및 세부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ESG 경영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장기업 뿐 아니라 거래소 스스로가 구체적인 ESG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ESG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KRX 국민행복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교육·인재육성·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업무에 페이퍼리스 보고 솔루션을 도입하여 종이 소비량을 절감하고 업무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ESG 경영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내부 ESG 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영지원본부 내 ESG경영혁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ESG 경영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반기 중 'KRX ESG 경영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ESG 공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한화 건설부문, 수처리시설 종합 솔루션 제공

㈜한화 건설부문이 수처리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처리시설의 현대화(개량·증설·이전), 자금조달, 운영 등에 대한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로만 생각했던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

상은 열린 공원과 함께 체육, 문화,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환경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0일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노후화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214억원(실시협약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사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한화 건설부문

업이다.

최신 하수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를 차단하며,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